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성령의 위대한 활동

교형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활 제6주일입니다. 부활 제6주일의 복음과 독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은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청하여 얻게 된 우리의 “다른 보호자”(요한 14,16)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으시고, “진리의 영”(요한 14,17)이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진리의 영은 사도들의 “안수”(사도 8,17)를 통하여 받을 수 있고 전합니다.

이러한 성령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요?

구원경륜 안에서 성부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셨으며,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성자께서는 하느님의 외아드님으로서 자신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병자치유와 많은 기적들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수난하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어 전에 없던 새 생명

을 인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던 기적과 치유를 지속시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에 우리가 참여할수 있게 하시어 부활케 하시며, 성체성사의 신비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몸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결국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일치시켜 “그리스도화”(diventa Cristo), 즉 ‘그리스도로 변화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위대한 활동이십니다.

그리스도로 변화된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La vita in Cristo)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요한 14,15)하였는데, 그는 자연스럽게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말미에 나오는 말씀,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요한 14,21)는 말씀은, 인간이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드러나게 하는 성령의 업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떳떳하게” 살 수 있고, 부활의 기쁨으로 온 세상에 하느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환호할 수 있는 것 또한,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놀랍고도 위대한 업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선한 처신”(1베드 3,16)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 제6주일, 우리는 부활의 기쁨 안에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일치시키신 성령의 위대한 활동을 봅니다. 그분께서 활동하시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일치 시켜주시기를 원하며 “기쁘고 떳떳하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성령께서는 어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해 본당 이희복 미카엘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부활 제6주일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느님께서서는,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우리도 우리가 지닌 희망에 관하여 언제나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이 전례에 참례합시다.

입당성가 : 143번 ‘진리의 성령’

본기도

† 전능하신 하느님, 이 기쁜 날, 저희가 정성된 마음으로 축제를 지내며,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드리오니, 지금 거행하는 이 신비를 언제나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 사도행전 8장 5절-8절, 14절-17절

안 내 :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자, 예수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합니다.

묵 상 : 사마리아인들이 표징을 보고 놀라고 감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햇살을 받아 회개와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성령을 청해야 합니다.

화답송 : ◎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제2독서 : 베드로 1서 3장 15절-18절

안 내 :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히 모시고,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라고 권고합니다.

묵 상 :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닌 희망에 대한 증언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바른 양심과 온유와 공손한 태도로 증언하고 선을 행하다가 겪는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성령께 의탁해야만 합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 14장 15절-21절

강 론 : '성령의 위대한 활동'(1-2쪽)

예물준비성가 : 219번 '주여 몸과 맘 다 바치오니'

영성체성가 : 496번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영성체 후 묵상

주님께서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보호자를 보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침묵>

하느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영께서는 우리와 함께 머무르시며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오시어 우리와 함께

걸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침묵>

주님!

저희가 결코 주님께로부터 버려지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와도 당신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공지사항

파견성가 : 245번 '맑은 하늘 오월은'

※ 공소사목 성금

전정임님

10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3,13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해 주세요.



알 림

■ 북부지구 교사 연수

- 일시 : 5월 21일(주일) 13:00 - 18:00
- 장소 : 하망동 본당
- 준비물 : 성경, 필기구, 초등부 교재, 두레판
- 대상 :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담당 수녀
- 참가비 : 1인 10,000원

■ 교구 수도자 모임

- 일시 : 5월 22일(월) 15:30 - 23일(화) 점심
- 장소 : 농은수련원
- 대상 : 본당, 공소(농민)사목 수녀, 출판 및 사회복지기관, 교육기관 수녀
- 준비물 : 세면도구, 필기도구

■ 청소년 축제

- 주제 : “여러분에게서는 생명이 약동합니다” (2코린 4,12)
- 일시 : 5월 28일(주일) 09:30 - 17:30
- 장소 : 가톨릭상지대학교 소피아관
- 대상 :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
- 준비물 : 주일 미사 준비, 개인 식수, 운동화
- 회비 : 참가하는 모든 인원(교사, 봉사자 포함) 1인 10,000원(점심 제공)

■ 교구 사제피정

- 일시 : 5월 29일(월) 17:00 - 6월 2일(금) 점심
- 장소 : 농은수련원
- 준비물 : 미사준비, 성무일도, 세면도구, 필기도구

■ 교구장 사목방문 일정 안내

- 6월 4일(성령 강림 대축일) : 춘양 본당
- 6월 11일(삼위일체 대축일) : 풍기 본당

■ 교구 성령기도회

- 일시 : 5월 22일(월) 20:30
- 장소 : 예천성당

■ 파티마 성모님과 함께하는 “대구성령축제”

- 주제 : 깨어나라 깨어나라(이사 52,1)
- 일시 : 5월 27일(토) 09:00 - 17:00
- 장소 : 성 김대건기념관 (대구대교구청 내 남산동)
- 강사 : 이창진(아폴레오) 삼성산 사랑의 성령봉사회 지도 신부
- 파견미사 : 교구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 / 사제단 (미사 16:00)
- 문의 : 054-954-0951

■ 예수성심시녀회 향심기도 소개피정

- 일시 : 일일피정 5월 28일(주일) 1박2일 소개피정 5월 27일(토) - 28일(주일)
- 대상 : 향심기도를 배우고 싶은 분
- 장소 : 성주 평화계곡 피정의집
- 신청 : 010-5332-7587

■ 여름성음악연수(가톨릭세실리아성음악협회)

- 주제 : 미사전례와 성가
- 내용 : 그레고리오성가, 오르간, 지휘, 성악, 음악기초이론 및 성음악작곡, CCM(생활성가)-전공과목택일
- 교수진 : 최호영 신부 외 15명
- 일시 : 7월 12일(수) ~ 7월 15일(토)
- 장소 : 가톨릭대성심교정
- 연수비 : 40만원(교재, 악보, 숙식비 포함)
- 접수 : 010-4513-7605 / 010-6395-1181

www.cecilkorea.org

7월 3일(월)까지 선착순 150명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 (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제 4장

혼인의 사랑

겉으로 드러나 커지는 사랑

134. 이 모든 것은 끊임없는 성장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사랑의 가장 특별한 형태인 혼인은 계속 성숙되어야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사랑에 대하여 말한 것을 늘 실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 본성상 성장에 한계가 없습니다. 사랑은 성령이신 무한한 사랑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 사랑을 실천하는 이에게도 이러한 성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랑은 성장할수록 사랑을 담는 그릇도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인은 “여러분이 서로 지니고 있는 사랑을 …… 주님께서 더욱 자라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십니다.”(1테살 3,12 참조)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이어 이렇게도 말합니다. “형제애에 관해서는 ……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더욱더 그렇게 하십시오”(1테살 4,9-10 참조). 더욱더 그렇게 하십시오! 혼인의 사랑은 불가해소성을 의무로 제시하거나 교리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은총의 힘으로 그 사랑을 꾸준히 성장시킬 때에 굳건해집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사랑은 위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다정한 태도를 훨씬 더 자주, 더 강하게, 더 아낌없이, 더 부드럽게, 더 기쁜 마음으로 보이면서 끊임없는 사랑의 활동으로 하느님의 은총에 응답할 때에만 사랑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자신들이 이룬 일치의 의미를 체험하고 날로 더욱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에게 부여 주시는 하느님 사랑의 선물은 또한 은총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하라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135. 성장하는 데에 힘을 주지 못하는, 목가적이고 완벽한 사랑에 대한 여러 환상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상의 사랑에 대한 천상적 개념은, 최상의 것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 곧 좋은 포도주는 시간이 지나야 숙성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합니다. 칠레 주교님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소비주의적 광고가 환상적으로 제시하는 그러한 완벽한 가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가정에서는 누구도 나이 들지 않고, 질병도 슬픔도 죽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 소비주의적 광고는 가정의 부모들

이 날마다 직면하는 현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한계와 결점과 불완전함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하라는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랑을 성숙시키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결합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더 건전한 것입니다.

대화

136. 대화는 혼인생활과 가정생활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표현하며 키워 나가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특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노력이 필요한 학습 과정의 열매입니다.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어른의 의사소통 방법이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며, 행동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질문하는 방법, 대답하는 방법, 말투, 적절한 때, 그리고 다른 많은 요소들은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고 참된 대화를 권장하는 태도를 키워야 합니다.

137. 시간, 소중한 시간을 내주십시오. 이는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적절한 순간이 올 때까지 말을 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참을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충고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이는 생각과 감정에 방해받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게 해 주는 내적 침묵의 함양을 의미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욕구와 걱정을 제쳐 두고 마음의 여유를 지니십시오. 배우자는 자신의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상대방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기의 고통, 실망, 두려움, 분노, 희망과 꿈을 알아주고 있음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불평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는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당신은 내 말을 듣고 있는 척 하지만 실제로 다른 것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말만 시작하면 그 사람은 내 말이 끝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 같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말할 때, 그 사람은 주제를 바꾸려 하거나 대화를 끝내려고 통명스럽게 대답을 해요.”

138. 상대방을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이는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며, 그가 살아가고 스스로 생각하며 행복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자기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도 상대방의 말이나 생각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저마다 서로 다른 경험을 하고, 모든 것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며, 자신들만의 관심사와 능력과 직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본심, 그 사람이 깊이 고민하는 것의 중요성, 거칠게 표현된 것이라도 그 말의 본뜻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들의 깊은 고민을 이해하며 그러한 고민들을 출발점으로 하여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다음에 계속 -



눈물의 기원

박월수 아녜스
(안동가톨릭문인회)

인류 최초로 눈물을 흘린 사람은 누구일까? 아마도 에덴의 사과를 따 먹은 죄로 하느님의 눈 밖에 난 이브가 아닐까요? 자신의 설움 때문에 울었는지 혹은 자신으로 인해 낙원에서 쫓겨난 아담에게 미안해서 울었는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그녀가 흘린 최초의 눈물은 자신은 물론 남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치유제로 작용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보니 인류의 번영은 여자의 눈물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최초의 눈물이 여자의 눈물이기 때문일까요. 여자들은 잘 옵니다. 밥을 먹다가도, 연속극을 보다가도, 친구 남편의 바람피운 얘길 듣다가도 눈물을 찝끔거립니다. 그래서 일까요. 남자보다 여자가 평균수명이 긴 이유는 눈물 때문이라고 합니다. 눈물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쌓이는 나쁜 성분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고 미국의 윌리엄프레이 박사는 밝혀놓았습니다. 인도의 오쇼 라즈니쉬가 개발한 울기 프로그램이나 미국의 심리치료요법인 프라이멀 요법도 ‘울음’이 치유의 매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자주 그리고 더 많이 울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어쩌다 사진 봉사를 하기 위해 시골 경로당을 들를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로당엔 할머니들 방만 복잡거립니다. 할아버지들이 계신 방은 허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만큼 노인 인구의 비율이 여자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런 부조화는 오래 지속된 일이기도 합니다.

할머니들은 쉬지 않고 수다를 떨며 자지러지게 웃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합니다. 그러다가 한 쪽에선 토라지기도 하고요. 할머니들이 계신 방은 동영상을 틀어 놓은 듯 분주합니다. 그에 반해 할아버지들이 계신 방은 정물화를 연상케 합니다. 멎어있는 풍경입니다. 시골에 다방이 그리 많아도 문 닫는 집 없이 밥벌이를 하는 건 할아버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들은 태초의 아담처럼 대신 울어줄 누군가를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자들은 슬플 때도 울고 기쁠 때도 울고 힘들 때도 울며 이유 없이도 옵니다. 하다 못해 외출에 입고 나갈 마음에 드는 옷이 없어서도 옵니다. 실컷 울고 나면 느껴지는 카타르시스 같은 걸 물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여자의 눈물에 흘려 떠내려간 남자를 몇몇 보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 남자들의 몫입니다. 따뜻하다고 너무 깊이 빠졌다가는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으니까요. 더구나 “아내를 울게 하지 말라. 하느님은 그녀의 눈물방울 수를 헤아리고 계신다.”라는 탈무드의 교훈처럼 여자를 울리는 남자는 울 줄 모르는 남자보다 몇 배 바보입니다.

아들이 얼마 전 혼자서 평평 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학교 부근 원룸에서 생활하며 아르바이트를 해 학비에 보태는 아이에게 할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멀어서 반찬을 해다 줄 수도 없고 돈 아끼지 말고 배불리 사먹고 다니라는 이야기였다는데요. 늘 애뜻함을 간직한 조손간이지요. 짬을 내어 찾아갈 때마다 용돈을 손에 쥐어주며 아껴가며 쓰라고 하던 할머니가 손주 밥 굶을까 염려되어 처음으로 돈 아끼지 말라는 말씀을 했으며, 가슴 어딘가가 마구 아팠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멋져 보였습니다. 갑각류처럼 웅크리지 않고 가슴이 시키는 대로 울 줄 아는 남자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제 아들은 울어본 사람만이 우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법이란 걸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이해한다는 건 곧 사랑을 안다는 것이지요. 눈물은 사람을 철들게도 합니다.